

연구 논문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박 찬 승**

- | | |
|------------------------|---------------------------------|
| 1. 머리말 | 3. 상해 영사관 경찰의 역공작과 有吉明공사 암살의 실패 |
| 2.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배경 | 4. 맺음말 |

1. 머리말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의 의거가 발생한 지 1년 뒤인 1933년 상해에서는 흔히 ‘육삼정의거’, 혹은 ‘육삼정사건’이라 불려온, 중국 주재 아리요시 아키래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나키스트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등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원심창과 백정기는 무기징역을 언도받았고, 이강훈은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중에 백정기는 옥사하고, 다른 두 사람은 1945년 해방을 맞아 석방되었다. 이 사건이 윤봉길 의거와 달리 실패로 끝난 것은 밀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4년도).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인 원심창과 이강훈, 그리고 모의에 가담했던 정화암, 류기석 등의 회고록이 나와 있다.¹⁾ 또 학계에서도 성주현과 박종연이 원심창과 이강훈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다룬 바 있다.²⁾ 그러나 당사자들의 증언 가운데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이를 다룬 논문에서도 사건 내용에 대해 다르게 서술한 부분이 있다. 서로 다른 부분은 주로 누가 밀정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밀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화암은 회고록에서 당시 아리요시 공사의 육삼정 모임에 대한 정보는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일본인 ‘오키’라는 인물로부터 얻은 것인데, 이러한 정보제공은 오키가 상해의 일본영사관 경찰과 함께 음모를 꾸며 한인 아나키스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었다고 썼다.³⁾ 이강훈도 그의 증언록에서 정화암의 이와 같은 설명에 동의하였다.⁴⁾ 류기석은 육삼정사건의 밀정은 다마사키(玉崎)라는 인물이었다고 쓰고 있다.⁵⁾ 한글 발음인 ‘오키’를 한자로 ‘옥기(玉崎)’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현의 논문은 밀정이 오키라는 인물이었다는 정화암과 이강훈의 증언에 동의하고 있다.⁶⁾ 반면 박종연은 류기석의 회고록을 인용하여, 다마사키(玉崎)라는 인물이 밀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⁷⁾ 또 황민호는 밀정의 이

1) 아리요시공사 암살미수 사건(이 사건의 주역인 원심창 등이 육삼정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육삼정사건’이라는 이름 대신 ‘아리요시공사 암살미수사건’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한다) 관련자들의 회고록은 다음과 같다.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 나의 회고록』, 자유문고, 1982.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 청뢰 이강훈 자서전』, 제3기획, 1994.

류기석, 『삼십년방랑기 : 류기석 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2)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24집, 2010;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9집, 2012; 박종연, 「일제시기 이강훈의 민족운동과 육삼정의거」, 『승실사학』 32집, 2014; 황민호, 「일제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이규창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집, 2014.

3)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 나의 회고록』, 151~152쪽.

4)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 청뢰 이강훈 자서전』, 159쪽.

5) 류기석, 『삼십년방랑기 : 류기석 회고록』, 232쪽.

6)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102쪽.

7) 박종연, 「일제시기 이강훈의 민족운동과 육삼정의거」, 126쪽.

름은 언급하지 않고,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하였다고만 쓰고 있다.⁸⁾ 그런가하면 김명섭은 모의에 가담한 또 다른 일본인 야타베 무지(矢田部勇司)가 일본영사관에 밀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⁹⁾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밀정은 오키(또는 다 마사키?)인가 아니면 야타베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밀정은 처음부터 음모를 꾸며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인가, 아니면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의 계획이 세워진 뒤 진행과정에서 이를 누군가 일본영사관 경찰에 밀고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3년 전 지인을 통하여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다.¹⁰⁾ 이 자료는 당시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올린 보고서와 상해 총영사관에 올린 영사관 경찰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3인에 대한 재판기록(판결문) 밖에 없었는데, 상해 총영사관의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해 총영사관의 자료는 일본 외무성자료관에 소장된 「在外帝國公使館及公館員被害關係雜件」이라는 제목의 자료철 안에 있다.

이 자료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총영사관에서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들이다.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보낸 전문들과 보다 자세한 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종류는 총영사관 경찰의 극비 보고서와 사건 약도이다. 이 보고서는 총영사관 경찰, 특히 야마다순사와 밀정이 이 사건을 어떻게 꾸며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세 번째 종류는 총영사관의 당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합본이다. (이하 「종합보고서」라 칭함, 그 내용은 有吉明공사 암살음모 사건, 흑색공포단 결성, 남화한인청년연맹 결성, 천진일본총영사관저 폭탄투척 사건 등으로 구성됨) 네 번째 종류는 천진사건과 관련된 원심창의 신문기록이다. 다섯

8) 황민호, 「일제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이규창의 민족운동」, 176쪽.

9)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168쪽.

10) 이 자료를 전해 준 김광만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

번째는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다.(예심종결결정서, 재판이 열린 나가사키현의 지사 보고 등)¹¹⁾ 이와 같은 5종류의 자료는 그동안 알려진 사건 내용과는 다른 새롭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사건 관련자였던 정화암,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등도 알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상해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남화한인연맹과 흑색공포단의 결성과정과 천진폭탄 투척사건, 그리고 아리요시 일본공사의 부임과 이후 진행된 일본군의 산해관과 열하 점령 사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위에서 설명한 새 자료들과 원심창 등 3인에 대한 나가사키지방법재판소의 판결문, 관련자들의 회고록 등을 토대로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성격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2.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배경

1)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은 상해의 한인 아나키스트(이하 당시의 용어인 ‘무정부주의자’라 표기함)들이 일으킨 것으로, 그들은 南華韓人青年聯盟과 黑色恐怖團이라는 단체의 소속원들이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은 柳基石과 柳子明이 발기하고, 張道善·鄭每理 등이 참여하여 1930년 4월 조직된 단체였다. 류기석(일명 柳絮)은 1905년 황해도 금천군에서 태어나 1915년 가족이 간도로 이주하여 국자가의 太光學校, 彰東學校를 거쳐 연길제2중학교를 다녔다. 1919년 간도에서도 3·13만세시위는

¹¹⁾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던 재판의 판결문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여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국 관내로 피신하였다. 그는 남경의 華公中學에 입학하여 1924년 졸업하였으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 원동위원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중학을 마친 뒤, 그는 1924년 북경의 朝陽大學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으나, 1925년 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즈음부터 국내의 신문과 잡지에 글을 실는 문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가 투고한 글들은 주로 문학과 예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나키즘 문예이론의 입장에서 있었다. 그는 1927년 1월 안창호와 함께 吉林에 갔는데, 중국 관헌에 일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1927년 5월 북경에 돌아온 그는 福建省에 신농촌을 건설하려는 중국인과 한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1928년에는 남경에서 결성된 중국인, 일본인, 한인 무정부주의자들이 만든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에 참여하였다.¹²⁾

류자명은 1894년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11년에 충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의 연정학원을 거쳐, 1916년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충주간이농업학교에 교원으로 취직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사전에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는 서울로 피신한 뒤 1919년 6월 신의주를 거쳐 상해로 갔다. 상해에서 그는 신한청년당에서 반 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귀국하여 신문, 잡지에 사회주의 혹은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글들을 투고하였다. 그런 가운데 그는 점차 무정부주의 쪽으로 기울어갔다. 그는 1921년 4월 북경으로 가 의열단에 가입하여 통신과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의열단은 신채호에게 의열단의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의 작성을 맡겼고, 류자명은 이를 도왔다. 의열단의 활동이 계속되었지만, 성과는 미미하였고 인적 손실은 컸다. 이에 의열단 내에서는 의열투쟁을 모험주의라 비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류자명은 의열투쟁을 고집하였다. 류자명은 피압박민족간의 연대도 중시하여 1927년 동방피압박민족연합

12) 최기영, 「해제」, 『삼십년방랑기 : 류기석 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23-29쪽.

회 결성에도 참여하였는데,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간 옥살이를 하였다. 1929년 그는 韓復炎기념농장, 黎明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1930년부터는 상해의 立達學院(립달농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그해 봄 류기석이 립달학원으로 류자명을 찾아가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¹³⁾

그러나 류기석과 류자명이 조직한 남화한인연맹은 곧 침체에 빠졌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의 계기가 된 것은 1930년 3월 충남 출신 申鉉鼎과 崔錫榮이 船荷證券을 위조하여 예산 호서은행으로부터 58,000원을 인출받아 북경으로 류기석을 찾아간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그 돈을 의열투쟁 자금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류기석은 천진의 일본영사관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상해로 간 것이었다. 류기석은 류자명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동지들을 모아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그해 5월 신현정과 최석영이 천진 일본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됨으로써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¹⁴⁾ 이후 남화한인청년연맹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인물이 元心昌이었다.

원심창은 어떤 인물인가. 원심창은 경기도 진위군의 평민 가문에서 태어났다. 1933년 당시 만 28세였으며, 상해에서는 주로 元勳으로 불렸다. 13세에 평택공립보통학교(4년제)를 졸업한 뒤 가업인 농업에 종사하다가, 17세에 경성으로 올라와 사립 중등학교(중등 정도) 속성과에서 2년 간 공부하였으나, 가사형편으로 퇴학한 뒤 귀향하였다. 그는 19세 때인 1924년 8월 도쿄로 가서 노동에 종사하면서 한편으로 사상운동을 시작하였다. 1927년 무정부주의 단체 흑우연맹에 가입하고, 1929년에는 '흑우연맹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되었다가 1930년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서 잠시 쉬 뒤에 그는 기차로 북경으로 갔다. 그는 북경의 민국대학 부근 중국인 집에서 하숙하면서 약

13) 이호룡, 「류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현실』 53, 2004; 김명섭, 「류자명의 항일 의열활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참조.

14) 『동아일보』, 1930년 3월 18일, 「船荷證券을 위조, 6만여원을 사취, 피해자는 호서은행」 9월 26일, 「崔申 兩人 1年役 구형, 호서은행사건 공판」 11월 30일, 「예산 湖銀사건 신현정 등 終豫」 등.

4개월간 체류했다. 그 사이 그는 북경대학에 재학 중이던 전라도 출신 丁來東의 소개로 이용준(일명 田理芳)을 알게 되었다. 1931년 3월, 그는 정래동으로부터 상해에 있는 무정부주의자인 정해리의 소개장을 받아 이용준과 함께 북경을 출발하여 천진을 거쳐 상해로 갔다. 상해에 온 뒤, 그는 정해리를 만났고, 그의 소개로 류자명, 이회영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당시 그는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류자명과 이회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 즈음 상해의 조선인 무정부주의자는 3, 4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해 7월경 그는 프랑스 조계 菜市路의 중국인 철공장 2층에 살았는데 북만주에서 백정기가 상해에 와서 그와 같이 살게 되었다. 또 같은 달, 류자명의 소개로 남경에서 온 일본인 야타베 무지(矢田部勇司, 중국명 吳世民)를 만나 알게 되었다.¹⁵⁾ 또 같은 달, 남경으로부터 이수현(본명 박기성)이 와서 그와 같이 살게 되었다. 그해 9월 까지 류자명은 南翔으로부터 일요일마다 상해에 와서 정해리, 이회영, 이용준, 원심창과 함께 무정부주의에 대한 연구와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 그해 10월 경 류자명은 중국인 무정부주의자 왕야차오에게 조선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생활을 원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 하순부터 왕야초의 지원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으로 북만주로부터 무정부주의자 양여주(본명 오면식), 엄형순, 김야엽, 김지강(본명 김성수) 등이 상해로 왔다. 그해 12월부터 원심창은 류자명이 근무하던 立達農學校를 왕래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1932년 1월에는 상해사변이 일어나 학생들과 함께 나상에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고, 이후에도 북경과 상해 사이를 전전하며 피난 생활을 했다. 4월에 상해로 돌아온 뒤, 다시 립달농학교에 가서 일본어를 가르쳤다. 8월에 학교로 찾아온 야타베를 만나 학교 기숙사에서 그와 동거하였으며, 9월 하순에 상해로 돌아와 프랑스조계 채시로에서 야타베와 동거하였다고 한다.¹⁶⁾

15) 1935년 일본 경찰에 체포된 도쿄의 한 '에스페란티스트'의 말에 의하면, 야타베도 역시 에스페란티스트로 간주되고 있었다고 한다(「상해 石射총영사가 廈門의 塚田 영사에게 보낸 조회」, 1935년 4월 12일 참조).

16) 이 사건 이전 원심창의 행적에 대해서는 상해총영사관, 「종합보고서」 5, 「피의자가 진술한 경력 기타」, 74~78쪽 참조.

원심창은 상해로 온 뒤 기대했던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에 가입한 뒤 이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우선 1931년 8월 29일 정화암(본명 정현섭), 류자명, 정해리 등과 함께 일본의 한국병합기념일에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초안은 원심창이 만들었는데, 그 제목은 “8월 29일 조선민족이 이민족의 노예가 된 날, 분기하여 적의 아성을 돌파하자”는 것이었다. 선언문의 초안은 이수현이 정서하였고, 원심창은 당시 정해리가 보관하고 있던 등사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10매를 등사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을 상해의 조선인 유학생과 운동가들에게 배포하였다.¹⁷⁾

남화한인청년연맹은 사무실을 원심창의 거주지에 두기로 하였고, 원심창은 연맹의 사무 일체를 맡았다. 연맹은 또 이듬해인 1932년 3월 1일 ‘3·1기념일과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이하여 각각 선언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선언문의 배포 대상은 이전과 같았다.¹⁸⁾ 그러나 연맹은 기념일에 선언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새로 등장한 인물이 白貞基와 李康勳이었다.

백정기는 전북 정읍에서 평민으로 태어났으며, 1933년 당시 31세였고, 상해에서는 주로 白鷗波로 불렸다. 어려서 한문을 배운 것 외에는 정규학교를 다닌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세에 부친을 사별하고, 숙부에게 양육되었으며, 15세에 결혼하여, 이후 숙부의 집과 처가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그는 점차 사상적으로 좌경화되어 21세에 경성으로 나와 민족운동에 참여하였고, 23세에 북경으로 가서 전남 출신 奇老春(공산주의자), 李乙奎(무정부주의자)와 그의 동생 李丁奎(무정부주의자) 등과 교류하면서 점차 ‘주의자’가 되어 갔다고 한다. 그는 24세 봄에 조선에 돌아와 경성과 고향에 있다가, 25세에 일본으로 도항하여 아미나시현 코후시에서 자유노동에 종사했다. 이어 도쿄로 가서 馬鳴 등 사회주의자와 동거하면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사상을 연구했다. 1923년 도쿄대지진 직전에 도쿄를 출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

17)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남화한인청년연맹’, 47쪽.

18)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남화한인청년연맹’, 48쪽.

다. 1924년 6월에는 다시 북경으로 가서 기노춘, 이을규, 이정규 등과 함께 지방을 전전하다가 이을규의 지도에 따라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1925년 봄에는 상해로 와서 프랑스조계에서 거주하면서 이을규, 류자명, 정해리, 정화암 등과 함께 무정부주의 운동을 했으며, 공장 직공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1930년 10월에는 만주무정부주의자청년연맹에 가입하고, 엄형순, 이수현, 이달, 이강훈 등을 알게 되었다. 1931년 7월 다시 상해로 와서 정해리의 소개로 원심창을 만나 알게 되었고, 9월에 만주에서 온 이수현(본명 박기성), 전리방(본명 이용준) 등과 함께 동거하였고, 10월에 역시 만주 혹은 북경에서 온 양여주(본명 오면식), 엄형순, 이달, 김지강(본명 김성수) 등과도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2명 내지 5명 단위로 프랑스조계 안을 전전하면서 자취 생활을 하였다.¹⁹⁾

한편 이강훈은 강원도 김화군에서 출생하였으며, 1933년 당시 31세였다. 그는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고, 16세에 철원공립보통학교(4년제)를 졸업했다. 18세까지 농업에 종사한 뒤, 19세에 공부를 위해 만주로 가서 간도 소재 명동중학교에 입학하여, 22세에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고향에 돌아와서 동아일보 김화지국을 경영하다가 이듬해인 1925년 이를 그만두고, 安東縣에 건너가 安圖民立學校 교사가 되었다. 1927년 이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안동현을 떠나 흑룡강성 밀산현에 이르러 普新學校라는 조선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스스로 교사가 되어 재류 조선인 교육을 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충돌 사건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九江泡로 피난을 가서 조선인 학교인 東新學校 교사로 있었다. 1932년 마적이 횡행하여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실직하여 다시 밀산으로 돌아갔으나 취직할 수가 없어 1932년 12월 북경으로 갔다. 그는 북경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인 오남기, 이용준, 류기석 등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무정부주의자들이 대부분 상해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용준과 함께 상해로 가서 구강포에서 알게 된 백정기를 만나 그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그는 상해에 온 뒤, 이용준이 천진 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을 던진 사실을

¹⁹⁾ 이 사건 이전 백정기의 행적은 「종합보고서」 5, '피의자가 진술한 경력 기타', 81~84쪽을 참조.

알게 되었다.²⁰⁾

2) 흑색공포단의 결성과 천진 폭탄투척사건

한편 1931년 11월 상순에 중국인 무정부주의자 왕야차오(王亞樵)와 화준스(華均實)는 상해에서 백정기를 만나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정부주의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백정기는 이에 동의하면서 신사회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행동 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왕야차오와 화준스도 동의하였고, 일본인 무정부주의자 사노 이치로(佐野一郎)도 동의하여, 이들 4인은 비밀결사로서 '흑색공포단'(B.T.P.)이라는 것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이란 1928년 6월 상해에서 중국, 조선, 일본, 대만, 안남, 인도, 필리핀 등 7개국 대표 200여 명이 회합하여 결성한 것이다. 이 연맹은 동방 각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단합하여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연합의 조직원리 아래 각 민족의 자주성과 각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목표로 했다.²¹⁾

왕야차오, 화준스, 사노 이치로, 백정기 등 4인은 1931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상해 프랑즈조계에서 흑색공포단을 조직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조직의 목표를 “현 사회의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새로이 세계 전 인류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자유, 또 평등을 향수할 수 있는 신사회를 수립”한다는 데 두고, 이를 위해 종래의 문사적 행동을 그만두고 새로이 직접행동 단체, 즉 모든 파괴공작으로써 사회혁명의 시기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제적 단체로서 흑색공포단을 결성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이들은 1) 각국의 무정부주의자를 입회시킬 것, 2) 흑색공포단 내에 경제부, 선전부, 정보부를 두고, 왕야차오를 경제부 책임자로 하며, 다른 부서는 책임

20) 이 사건 이전 이강훈의 행적은 『종합보고서』 5, ‘피의자가 진술한 경력 기타’, 85~87쪽을 참조.

21)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141쪽.

자를 두지 않으며, 3) 각 회원은 그 국적에 의해 동지를 획득하고, 자국에 대해 파괴공작을 하고, 4) 파괴공작은 일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행하기로 하였다.²²⁾

백정기는 1931년 12월 3일에 박기성(일명 이수현), 이용준(일명 전리방)에게 흑색공포단의 가입을 권유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었고, 8일에는 김성수(일명 김지강), 이달, 엄형순, 오면식(일명 양여주) 등 4명에게 역시 가입을 권유하여 동의를 얻었다. 백정기는 1932년 1월 초 화권스를 만나 위의 6명의 입회 지원자가 있음을 말하였고, 화권스는 그들이 주의 상 민을 만찬 인물들인지를 백정기에게 확인한 뒤, 입회를 허가하였다. 또 1933년 2월 5일 이강훈이 상해에 오자, 20일 백정기는 이강훈을 만나 가입을 권유하여 이강훈도 흑색공포단에 가입시켰다. 왕야차오는 화권스를 통하여 백정기에게 1932년 10월 까지 매월 40원에서 300원까지 총 1,200원의 자금을 보내왔다. 그러나 화권스는 1932년 10월 송자문 암살사건의 수모자로 발각되어 도피하였기 때문에 백정기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정화암이 백정기 등 흑색공포단 단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그가 왕야차오와 화권스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정기는 1932년 8, 9월경 정화암에게 폭탄과 권총의 입수를 부탁했고, 정화암은 9월 하순 내지 10월 초순경에 도시락형 폭탄 1개와 거북이 등 모양의 수류탄 1개를 구해다 주었다.²³⁾ 이 폭탄은 1932년 윤봉길의 홍구공원 거사에서 사용한 수통형 폭탄과 함께 가져간 도시락형 폭탄과 동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영사관 경찰은 두 개의 도시락형 폭탄이 동시에 동일한 주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폭탄은 王雄(본명 김홍일)의 집에서 김구가 윤봉길에게 처음 보여준 것이고,²⁴⁾ 윤봉길의 거사에는 안공근이 참여한 것은 확실한 일이어서 육삼정 사건에 사용된 폭탄의 수수에 대해

22)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흑색공포단', 37~38쪽.

23)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흑색공포단', 41쪽.

24) 윤봉길의거에 사용된 폭탄은 김구가 김홍일을 통해 상해 병기창장 宋式麤에게 부탁하여 병기창의 기사 王伯修가 만들어준 것이었다고 한다(김구 지음, 도진순 교감, 『정본(定本) 백범일지』, 돌베개, 2016, 407쪽).

안공근, 김구, 왕웅 등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²⁵⁾ 이강훈은 훗날 회고에서 이 폭탄은 정화암이 김구로부터 받은 것이었다고 말하였다.²⁶⁾

한편 정화암이 백정기를 지원한 것을 보면 흑색공포단은 이즈음부터 사실상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행동단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²⁷⁾ 이상에서 보면, 흑색공포단원으로는 왕야차오, 화권스, 사노 이치로, 백정기, 박기성, 이용준, 김성수, 이달, 엄형순, 오면식, 이강훈 등이 있었다. 그런데 「종합보고서」를 보면, 그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毛一波, 林成材, 존슨 등이 있었다.²⁸⁾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원심창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원심창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부흥을 위해 상해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金東星, 龔致亨을 입회시켰다. 그는 또 1933년 1월부터는 연맹원들을 매주 자신의 거주지에 모이게 하여 신문기사 중의 시사문제 등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벌이거나 또는 회원들이 평소 연구한 바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즉 회원들의 사상교육에 주력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33년 2월 이강훈도 연맹에 입회하여 새 회원이 되었다. 또 원심창은 3·1기념일을 맞아 격문을 만들어 조선인들 사이에 배포하는 등 단체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²⁹⁾

이상에서 거론한 흑색공포단 단원과 남화한인청년연맹 단원의 신상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 '有吉공사 암살음모 불령선인 일당 검거에 관한 건」(1933년 3월 27일자), 27~28쪽.

26)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 김성숙·장건상·정화암·이강훈의 독립투쟁』, 민음사, 1988, 444쪽.

27) 「종합보고서」 3, '흑색공포단 및 무명결사 기관지 <자유>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관계', 63쪽.

28) 「종합보고서」 3, '흑색공포단 및 무명결사 기관지 <자유>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관계', 64쪽.

29)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남화한인청년연맹', 51쪽.

〈표 1〉 흑색공포단과 남화한인청년연맹 단원의 신상

소속단체	이름	별명	출신지	나이(1933년)	기타
흑색	白貞基	白鷗波	전북 정읍	37세	
남화, 흑색	李康勳		강원 김화	31세	
남화, 흑색	李達	宋一舟	충남	25세쯤	
남화, 흑색	朴基成	李守玄, 李壽鉉	충청도	25세쯤	
남화, 흑색	金聖壽	朱烈, 金芝江	경상도	30세쯤	
흑색	嚴亨淳	金萍痕	경상도	25세쯤	
흑색	李容俊	田理芳, 千里方			
흑색	吳冕植	楊汝舟, 馬仲良	충청도	39세쯤	
흑색	王亞樵		福建省	44세쯤	중국인
흑색	華均實		浙江省	38세쯤	중국인
흑색	毛一波				
흑색	佐野一郎	田化民, 吉田	京都 上京區	31세	일본인
흑색	林成材				
흑색	존슨				
남화	柳基石	柳架, 柳基錫	경기 경성	29세	
남화	柳子明		충북 충주	39세	
남화	鄭賢燮	鄭華巖	전북 김제	37세쯤	
남화	鄭致亨				
남화	金東星				
남화	元心昌	元勳	경기 진위	29세	
남화	張道善				
남화	鄭海理	鄭每日, 鄭東梧	경기 또는 충청	35세쯤	

※자료 : 「종합보고서」; 「상해 총영사가 외무대신에 올린 보고서」(1933.3.27.) 참조.

위와 같이 남화한인청년연맹과 흑색공포단이 정비되는 가운데 1932년 10월 그동안 북경과 남경에서 활동하던 류기석이 다시 상해로 왔다. 그는 북경에서 福建抗日會로부터 운동자금으로서 7천불을 수령하였는데, 이 가운데 4천불을 쓰고, 남은 3천불을 가지고 상해에 왔다. 그는 상해에 와서 류자명, 정화암과 만나 만주사변, 상해사변 등으로 중국 내에서 항일의 기운이 높아진 상황에서 항일 의열투쟁을 감행한다면 동북의용군으로부터 다시 수만 불의 자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이에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맹원 가운데 원심창과 이용준이 동의하자 원심창은 천진 폭탄 투척사건을 계획하게 된다.³⁰⁾

류기석은 원심창, 이용준 두 사람을 데리고 11월 19일 상해를 출발하여 21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원심창과 이용준은 북경 북문 소재의 太平公寓에 머무르면서 류기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옷을 한 벌씩 만들어 입었다. 류기석과 그의 동생 류기문은 그 사이에 여비를 구하고, 폭발물 3개를 구입하였다. 12월 14일 류기석, 원심창, 이용준 일행은 북경을 출발, 천진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폭발물 투척 대상지로서 일본군사령부, 일본총영사관저, 프랑스조계 내에 정박 중인 일본 기선 등을 설정한 뒤, 현장을 답사하였다. 그들은 일본총영사관저는 경계가 삼엄하여 폭발물 투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일본총영사관저는 이용준이, 일본군사령부는 류기석이 투척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창은 천진의 지리에 밝지 않아 도주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투척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원심창은 결행 후 상해로 돌아가 동지들에게 보고하는 책임을 맡았다.³¹⁾

12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이용준은 빅토리아 공원 내에서 일본총영사관 관저에 수류탄 1개를 투척하여 건조물 일부를 파괴시켰다. 류기석은 5시경 폭탄 2개를 가지고 나와 동생 류기문에게 이를 주어 사령부에 던지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류기문은 일본군 사령부는 그곳에서 너무 멀어 6시 반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항구에 정박 중인 일본 기선에 폭탄을 던졌다. 폭탄 1개는 기선에 미치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으며, 이를 본 기선의 선장이 배를 급히 빼내어 도주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개는 던지지도 못하고 말았다.³²⁾ 천진에서 실패한 원심창은 다시 상해로 돌아와 백정기를 만나서 아리요시 일본공사의 암살을 논의하게 된다.

3) 有吉明공사의 부임과 일본군의 열하 점령

1932년 7월 일본 정부는 윤봉길 의거에 의해 부상당한 주중 공사 시게미츠

30)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천진폭탄사건’, 52쪽.

31)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천진폭탄사건’, 53~56쪽.

32)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천진폭탄사건’, 56~58쪽; 「원심창 청취서」.

마모루重光葵를 당분간 정양케 하고, 후임에 전 브라질 대사 아리요시 아키래有吉明을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화민국 정부에 통고하였다.³³⁾ 중국 정부도 이에 동의하여, 신임 아리요시 공사는 9월 4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그는 도착 성명에서 과거 오랫동안 중국에 근무하면서 중국 각계의 도움을 얻어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평한 관찰, 공평한 판단으로 각종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³⁴⁾ 그는 9월 7일 남경으로 가서 중국 외교부장 로웬칸羅文翰과 회견하고, 일본정부가 만주국을 승인하려는 당시의 시점에서 중화민국이 불법한 배일행위를 계속한다면 일본은 단호히 응징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중일간의 문제는 반드시 중일간의 직접적인 외교교섭에 의해 풀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³⁵⁾

아리요시 공사의 중화민국 정부에의 국서(國書:신임장) 봉정식은 9월 28일로 예정되었다. 그런데 이를 이틀 앞둔 26일 상해 일본영사관 경찰은 아리요시 공사 일행의 출발을 기회로 除妖團이라는 단체가 상해 북정거장에서 일행을 암살하려 한 음모를 탐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공사 일행의 육로행을 중지하고, 배편으로 남경으로 가도록 조치하였다. 또 일본 경찰은 工部局, 公安局과 연락하여 제간단의 관련자 추적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그들에는 ○○인도 참가한 의심이 있어 모 방면으로 수사를 속행한다.”고 쓰고 있다.³⁶⁾ 여기서 ‘○○인’은 ‘조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해의 일본영사관 경찰은 이때부터 조선인에 대한 탐문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아리요시 공사는 28일 남경에서 국서 봉정식을 마치고, 중화민국의 여러 당국자들과 만났다.³⁷⁾ 그는 또 10월 17일에는 북경으로 가서 영국대리 공사, 장쉐량張學良 등을 만났다.³⁸⁾ 아리요시 공사는 10월 25일에는 본국

33) 『동아일보』, 1932년 7월 24일, 「民國公使에 有吉氏 起用」 7월 27일, 「신임 중국공사 有吉씨로 임명」.

34) 『동아일보』, 1932년 9월 7일, 「공평한 판단으로 各種 問題 受理, 有吉公使 着任 聲明」.

35) 『동아일보』, 1932년 9월 9일, 「有吉공사 入京, 羅文翰과 會見」.

36) 『동아일보』, 1932년 9월 29일, 「有吉公使 일행에 대한 暗殺陰謀 遂暴露」.

37) 『동아일보』, 1932년 9월 29일, 「有吉公使의 국서 봉정식」 10월 2일, 「有吉公使 中側 招待」.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청도로 가서 배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³⁹⁾ 본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아리요시 공사는 11월 20일 도교를 출발하여 다시 상해로 향하였다.⁴⁰⁾

그런데 1932년 11월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상해에서는 남경정부 요인과 국제연맹 조사단, 그리고 아리요시 일본공사를 암살하려는 대규모 단체가 드러났다고 한다. 이 암살단은 상해의 유명한 流氓 단체 靑幫에서 항일 구국회의 자금 수백만 원을 받아 조직한 것으로, 그 두목은 유명한 수령인 황진룡 黃金榮이었다. 청방이나 홍방은 원시적인 길드조직으로, 그들은 유의유식하면서 아편판매, 매음, 절도, 강도, 암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그 수는 수만 명에 달했다. 프랑스조계 당국은 조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유맹의 두목들에게 고등정탐의 직업을 주고 그들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의 국가주의파와 남경정부 반대파는 수백만 원의 자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하여 대암살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1932년 상해 북정거장에서 남경정부의 송쯔원 宋子文 일행이 도착하였을 때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발사하여 5, 6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후에도 송쯔원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송쯔원의 집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했다. 또 그들은 왕자오밍(汪兆銘, 뒤의 왕징웨이)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었다. 그들은 국민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 한 것이었다. 또 국제연맹의 릿튼 조사단을 암살하려 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그들은 새로 부임한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할 목적으로, 그가 신임장을 봉정하기 위해 남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로 되어 있던 북정거장의 열차 밑에 폭탄을 설치하였으나, 사전에 폭탄이 발견되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⁴¹⁾ 아리요시 공사는 이처럼 만주사변, 상해사변 등으로 중-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인들에 의해서도 암살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38) 『동아일보』, 1932년 10월 20일, 「有吉공사 着平」.

39) 『동아일보』, 1932년 10월 27일, 「有吉공사 歸任」.

40)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有吉공사 歸任」.

41) 『동아일보』, 1932년 11월 16일, 「數萬 단원 포용한 상해 대암살단, 國府 요인과 有吉公使 등 암살계획, 전술할 그 정체와 흑막」.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그해 12월 초 중국측과 일본측은 산해관에 병력을 집중함으로써 양측은 대치상태에 들어갔다.⁴²⁾ 이후 산해관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결국 양측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져, 결국 일본군(관동군)이 산해관을 점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⁴³⁾ 이어서 관동군은 1월 들어 만주국의 영토를 열하성까지 확장하려 하였다. 관동군과 일본 정부는 열하성은 만주국 영역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이에 장쉐량(張學良)은 그의 휘하에 있던 열하성의 군대에게 경계를 높이도록 지시하였다. 2월 말 관동군과 만주군은 마침내 '熱河省 토벌'을 내세워 열하의 장쉐량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은 며칠 만에 열하의 開魯, 朝陽, 赤峰, 凌源을 점령하였다. 이에 장쉐량은 군대를 추가로 파견하고, 장제스(蔣介石)도 직계 군 2개 사단을 열하로 파견하였으나,⁴⁵⁾ 3월 4일 열하의 수도 承德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⁴⁶⁾

장제스는 3월 7일 漢口에 가서 武漢에 집결한 중앙군 3만 명에게 긴급동원령을 내려 북상하도록 했다. 그는 산서군과 중앙군의 병력으로 장쉐량군을 원조하여 열하에서 일대 수복작전을 펴려 한 것이다.⁴⁷⁾ 이후 장성 안팎에서는 중국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3월말 일본군이 장성 40여 관문의 방비를 약함으로써 양군의 충돌은 크게 줄어들었다.⁴⁸⁾ 그리고 이후 일본군이 장성선을 넘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장제스는 안심하고 남하하여 공산군 토벌에 진력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군과 만주군은 4월 하순 들어 대거 灤河 이동 지역을 점령하고 장성 이내 진출을 노리기 시작했다.⁴⁹⁾ 이에 대해

42) 『동아일보』, 1932년 12월 8일, 「山海關 공기 再險」.

43) 『동아일보』, 1933년 1월 4일, 「일본군 3일 아침부터 山海關을 총공격, 民國軍 各地兵을 山海關 집중, 적극적 戰備에 노력」.

44) 가토 요코 저, 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186쪽.

45) 『동아일보』, 1933년 2월 28일, 「육군성 공표」·3월 4일, 「赤峰凌源 함락에 경악, 장제스 북진을 결의」.

46) 『동아일보』, 1933년 3월 5일, 「熱河省 首府 承德, 今朝 10시 필경 함락」.

47) 『동아일보』, 1933년 3월 8일, 「장제스 遂北平向發 장쉐량 도와 일대반격」.

48) 『동아일보』, 1933년 4월 3일, 「中國 逆襲 不能期로, 熱河作戰 일단락, 長城 40여 관문의 방비를 정비, 중외에 성명을 발표」.

국민정부는 일본군의 장성 이남 공격에 대해 즉시 철병을 요구하였다.⁵⁰⁾ 그러나 전투는 5월 31일 塘沽에서의 정전협정 조인 때까지 이어졌다.⁵¹⁾

당시 신문에서 보면 일본군의 열하 공격이 시작된 2월 20일 이후 아리요시 공사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3월 8일 남경에 가서 외교부장 로웬칸을 만나 중국측의 방침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⁵²⁾ 그리고 3월 24일 본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로 떠나게 된다.⁵³⁾ 뒤에 보듯이 3월 17일 상해에서 발생한 ‘아리요시 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심창은 아리요시 공사가 2월 말경에 장제스를 매수하여, 장제스가 만주를 포기하고 일본군의 열하 침공에 대해서도 무저항주의를 택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문에는 그런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그럴 만한 정황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원심창은 떠도는 소문이나 일본인 밀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3. 상해 영사관 경찰의 역공작과 有吉明공사 암살의 실패

1) 영사관 경찰의 역공작 개시

이른바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 상해 총영사관이 작성한 「아리요시공사 암살미수사건 중

49) 『동아일보』, 1933년 4월 27일, 「日滿軍 關內進出後 全中 對日論 격화」.

50) 『동아일보』, 1933년 4월 30일, 「국민정부 외교부, 즉시철병을 요구,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항의」.

51) 古屋哲夫, 「日中戰爭にいたる對中國政策の展開とその構造」, 『日中戰爭史研究』, 吉川弘文館, 1984 참조.

52) 『동아일보』, 1933년 3월 14일, 「有吉공사, 나씨 방문. 타개책 의견 교환」.

53) 『동아일보』, 1933년 3월 18일, 「新對中策 具申次 有吉공사 歸朝」.

합보고서」와 예심종결결정서, 2)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판결문, 3) 총영사관 경찰의 야마다 순사가 경찰서장 대리에게 보고한 내부보고서인 「무정부주의 불령선인의 아리요시 공사 암살음모사건 내사의 건 보고」 등이다. 이 가운데 1)과 2)의 자료는 뒤에 보듯이 상해 총영사관 경찰의 밀정이었던 오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왜곡 작성된 것이었다. 즉 원심창에게 왜곡된 정보를 준 인물을 이 사건에서 원심창을 도왔던 또 다른 일본인 아나키스트 야타베 무지(矢田部勇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3)의 자료인 야마다 순사의 「有吉 公使 암살음모사건 내사의 건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한다.

1932년 11월 천진의 일본총영사관 폭탄 투척사건에 관계한 원심창은 상해에 돌아와 후속 사건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두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1933년 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본군의 산해관과 열하 점령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중 일본 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는 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해 주재 미국총영사를 암살하여 미일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미일전쟁의 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⁵⁴⁾

상해 주재 일본영사관 경찰인 순사 야마다 가쿠베에(山田角兵衛)는 경찰서장 대리인 후쿠야마 미카쿠(福山三霍) 경부에게 올린 3월 17일자 보고서에서 1933년 2월경 상해의 한인들이 일본 요인의 암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후쿠야마 경부의 지휘 아래 약 3주간 내사를 벌여 류자명,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야타베 무지 등이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⁵⁵⁾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야마다는 1932년 말에 천진의 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한 범인의 1인인 원훈, 즉 원심창이 사건 직후 상해로 와서 잠복해 있으며, 상해에서 다시

54) 「무정부주의 불령선인의 有吉 공사 암살음모사건 내사의 건 보고」(소화8년 3월 17일, 「巡查 山田角兵衛의 경찰서장 대리 경부 福山三霍에의 보고」, 이하 「야마다순사 보고서」라 칭함), 1~5쪽.

55) 「야마다순사 보고서」, 1~2쪽.

일본 요인의 암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원심창이 금후의 음모에 사용할 폭탄과 권총을 입수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 원심창 등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 악화를 위해서 상해 주재 미국총영사의 암살도 기도하고 있으며, 원심창은 현재 여순감옥에서 사망한 이회영의 장남 모(당 19세, 이규창을 가리킴)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⁵⁶⁾

당시 아마다는 상해에 와 있던 일본인 오키(沖)라는 인물을 밀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오키는 일본인 저널리스트로서, 본국에서 상해로 건너와 활동 중인 인물이었다. 아마다는 오키를 불러 원심창과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아마다의 보고서에 의하면, 밀정 오키는 3월 5일 오후 2시 상해 프랑스조계 대 세계 뒤쪽의 廣州飯店에서 원심창 및 이규창과 만났다고 한다. 당시 누가 이들 사이의 모임을 주선했는지는 알 수 없다.⁵⁷⁾

보고서에 의하면, 첫 만남에서 원심창은 오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1) 천진 총영사관의 폭탄 사건은 자신이 한 것이며, 공범인 柳絮, 즉 류기석은 현재 북경에 잠복 중이다. 2) 거사의 자금은 푸젠성의 泉州抗日會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그 액수는 1만 3천 불이었으며, 현재 남은 돈은 7천 불이며, 이는 江灣鎮 소재의 노동대학 학장을 지낸 중국인 모씨에게 보관 중이다(이 보고서는 이 중국인 모씨가 한국인 류자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 상해의 미국 총영사도 암살하여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미일개전의 원인이 되도록 한다. 4) 아리요시 공사의 암살은 폭탄으로써 할 계획이며, 미국 총영사의 암살은 일본도(단도)로 함으로써 범인이 일본인인 것처럼 꾸밀 계획이다. 5) 이 음모사건 실행 전에 그들 일당의 배신자 3명을 제물로 바치고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6) 수일 전

56) 「아마다순사 보고서」, 4-6쪽. 아마다가 누구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알아냈는지는 분명치 않다.

57) 「아마다순사 보고서」, 6쪽.

정화암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정화암과 남화연맹 동지들은 ‘제2의 홍구공원 의거’를 획책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오키라는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하는 일본인이 접근해 와서 원심창의 소개로 정화암도 만났다고 한다. 당시 오키는 통신사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비교적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 김성숙·장건상·정화암·이강훈의 독립투쟁』, 447쪽).

천진 요코하마쇼킨은행(橫濱正金銀行) 지점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인데, 성공하지 못해 유감이다. 7) 자신들의 거주지는 18호 전차 종점의 프랑스 조계와 중국 조계의 경계 부근이다.⁵⁸⁾

원심창이 이상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오키에게 털어놓은 것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오키를 소개했고, 또 이날 오키가 원심창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정보는 아리요시가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에 上海 虹口の 한 요정에서 상해의 유지들과 송별연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었다.⁵⁹⁾ 원심창은 이때 오키에게 아리요시 공사 암살의 실행을 위하여 공사가 타는 승용차의 종류, 색깔, 자동차번호 등을 알아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만남 뒤에 밀정 오키는 아마다 순사에게 회동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아리요시 암살에 사용할 폭탄과 수류탄, 권총 등도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 같다고 전했다.⁶⁰⁾

이날 오키와의 만남에서 아리요시가 홍구에서 송별연의 자리를 갖는다는 중요한 정보를 들은 원심창은 급히 흑색공포단의 동지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의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그날 저녁 7시 원심창은 백정기와 이강훈의 거주지인 福履理路 亭元坊 6호의 집에 흑색공포단원을 소집하여, 백정기, 이강훈, 이달, 이용준(전리방), 오면식(양여주), 박기성(이수현), 김성수(김지강), 엄형순 등 단원 8명과, 단원이 아닌 정화암, 정해리 등 총 11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원심창은 최근의 정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무정부주의자에게 동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인데, 일본은 전력을 다해 만주국의 견실한 발달을 원조하고 있어

58) 「아마다순사 보고서」, 7-9쪽.

59) 정화암에 의하면, 이 정보를 받은 이후 정화암, 류자명, 원심창 등이 오키를 만나 다시 한 번 이 정보를 듣고 이를 검토했다고 하며, 오키가 특유의 달변으로 서슴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한다(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 김성숙·장건상·정화암·이강훈의 독립투쟁』, 447쪽). 오키의 보고 가운데 류자명이나 정화암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60) 「아마다순사 보고서」, 9쪽.

수년이 지나면 만주국은 견실한 국가가 될 것은 필연이고, 일본으로서는 또한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 조선과 중국의 혁명은 당분간 전망이 없다. 駐華 日本公使 아리요시 아키라는 일본 정부 荒木 陸相의 밀명에 의해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장 장제스를 4천만 원에 매수하여 장제스에게 만주를 포기하게 하고, 熱河에서도 무저항주의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왔다. 이 교섭은 2월 중순경 대략 성립함으로써 곧 귀국하기 위해 홍구의 모 요정에서 유지들과 송별연을 연다고 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다.”⁶¹⁾

원심창이 이와 같이 말하자, 그 자리에 참석된 사람들은 아리요시 공사가 지참한 4천만 원은 일본 민중의 고혈을 착취한 것이고, 장제스의 행동은 중국 민중을 파는 매국노적 행위이므로, 우리 무정부주의자로서는 이 밀약을 양국 민중에 폭로하고 위 밀약의 성립을 저지함과 함께 일본의 중국에서의 외교정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여, 무정부주의자의 위협이 되는 일본제국주의의 강화를 방지하고, 중국 민중의 장제스에 반대하는 열기를 격발시켜 평소 자신들이 구상해온 혁명 시기의 단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수단으로서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⁶²⁾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아리요시 공사의 장제스 매수설은 당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마도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었거나 밀정 오키로부터 들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판결문에 의하면, 3월 5일 저녁 이미 원심창은 ‘홍구의 모 요정’을 언급하였다. 이는 그날 낮에 만났던 오키로부터 얻은 정보였음이 틀림없다. 즉 원심창과 흑색공포단원들은 오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아리요시 암살 실행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키는 일본 경찰의 밀정이었고, 그가 준 아리요시에 관한 각종 정보는 허위정보였다. 원심창과 그의 동지들은 일본경찰의 역스파이 공작에 너무 쉽게 말려들었다.

61)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판결문」, 12~13쪽.

62)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판결문」, 13~14쪽.

2) 원심창 등의 암살계획 수립과 일본 경찰의 함정

3월 5일 저녁 이강훈은 자신이 이 거사의 주역이 되겠다고 나섰고, 이에 백정기 외 6명의 흑색공포단원들도 모두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다음 날인 3월 6일 오전에 전날 모임에 참석했던 11명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모였다. 이들은 정화암의 제의에 따라 거사 결행의 당사자를 추천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화암은 종이조각 8매를 만들어 그 가운데 有吉의 '有'자를 쓴 종이를 두 장을 넣었다. 정화암은 종이 조각 8매를 자신의 모자 속에 넣고 흑색공포단원 8명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날 가장 먼저 지원했던 백정기, 이강훈 두 사람이 당첨되었다.⁶³⁾

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아리요시 공사 암살은 BTP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탄 및 수류탄을 투척하고, 또 권총을 사용할 것.

결행 일시 장소는 공사의 登退廳의 도중 도로의 교차점 부근에서 자동차가 정지하였을 때가 좋다.

결행하면 반드시 관헌의 수사가 급박하게 될 것이므로 결행 전 각자는 도망 잠복 장소를 물색하여 둘 것.

移轉 潛伏의 장소는 서로 비밀로 하고, 동지라 해도 알려주지 말 것.

이전 기타 제반의 준비 자금은 정화암이 조달할 것.

원심창은 결행의 일시 장소 및 아리요시 공사 상용자동차 번호를 탐사하여 보고함과 함께, 가능하면 공사의 사진을 입수할 것.⁶⁴⁾

위의 결정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아리요시 공사가 참석한다고 하

63)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15-16쪽.

한편 이강훈은 회고록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훗날 사람들에게는 여덟 명이 제비를 뽑아 집행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현섭(정화암 : 인용자)의 제안에 따라 제비를 여덟 개 만들어 모자에 넣고 뽑는 것처럼 하되, 백·이양인이 당첨되도록 사전에 조종하고 조작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적에게 단케이름과 같이 무서운 인간들이라는 인상을 주자는 선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3기획, 1994, 158쪽.)

64)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16-17쪽.

는 연회의 일시와 장소를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등청과 퇴청 시간에 교차점 부근에서 그의 자동차를 기다렸다가 암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창과 오키는 3월 5일에 헤어질 때 일주일 뒤인 12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원심창은 오키에게 전화를 해서 6일 오후 3시에 전날에 만났던 광주반점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여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 이날 원심창은 오키에게 공사 암살을 위한 실행자를 전날 밤에 결정하기 위해 동지들이 회합하여 협의한 결과, 8명의 지원자가 있어 선정이 곤란하여 추첨을 한 결과 2명을 선정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다만 원심창은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또 사건 실행 후에 신문에 발표할 자료로서 실행자의 사진, 선언, 경력 등을 목하 제작 중이라고 말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오키에게 건네주겠다면서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⁶⁵⁾ 이는 오키가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언론 쪽에 자료를 전달해 공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창은 실행자의 한 사람은 목하 자서전을 기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키에게 공사의 동정을 살피는 데 편리하도록 공사관저 부근에 적당한 집을 물색 중이며, 결정이 되는대로 통보를 할 터이니, 이 집에서 공사의 등청과 퇴청 시간 및 통로, 연회에 출입하는 장소, 자동차의 속도 등을 조사해서 통보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3월 9일 오후 3시에 원심창의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원심창은 자신의 거주지의 주소와 약도를 오키에게 건네주었다. 원심창의 거주지는 菜市路 底榮仁里 16호 2층 前樓였다. 원심창은 오키와 3월 6일 만났을 때, 알베르로 방면에 1개월에 5弗을 주고 가옥 하나를 빌렸으며, 이곳에서 약 20명의 동지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한다.⁶⁶⁾

그런데 일본 영사관 경찰이 만들어 외무성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공식적인 「종합보고서」에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심창이 3월 7일 동거 중이었던 일본인 야타베 무지에게 아리요시 공사의 사진을 입수

65) 「아마다순사 보고서」, 10-11쪽.

66) 「아마다순사 보고서」, 11-13쪽.

하고, 자동차 번호를 탐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또 3월 9일에 야타베는 근일 중에 흥구 소재 일본 요정 육삼정 혹은 신육삼정에서 아리요시 공사가 참석하는 연회가 열린다는 정보와 아리요시 공사의 사진 및 자동차 번호를 탐지하여 원심창에게 보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밀정 오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허위보고였다.

한편 야마다 순사의 내부 보고에 의하면, 밀정 오키는 3월 9일 오후 2시경에 원심창과 그의 집에서 만났는데, 이때 오키는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실행자 2명에 대해 석별의 의미로 술을 제공하겠다는 뜻의 제의를 하였던 바, 원심창은 이를 쾌락하고, 10일 밤에 술을 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중에 대만공산당원 부인이라고 칭하는 여자 1명과 조선인 千里放(田理芳, 즉 이용준) 외 1명이 내방하였다고 한다.⁶⁸⁾

이에 야마다 순사는 밀정 오키에게 비책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비책은 바로 연회의 장소를 알려주어 원심창 일행을 유인하여 체포하는 것이었다. 밀정은 3월 10일 오후 8시경 日本酒 1명을 들고 원심창의 집에 갔지만, 실행자 2명은 오지 않았다. 그 이유를 원심창에게 물으니, 원심창은 만일 그들이 검거되는 경우에 신문 과정에서 오키를 만난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어,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결국 오키는 동석한 다른 사람들(4명)과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원심창은 이 날 “노동대학 류자명은 3월 11일 토요일 밤에 南翔으로부터 상해에 와서 아리요시 공사 암살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상해에 체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⁶⁹⁾

실제로 류자명은 3월 11일 남상에서 상해로 왔다. 그것은 정화암이 류자명에게 거사를 위한 자금의 염출을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전 10시경 정화암과 함께 원심창의 집을 방문하여 북경의 류기석으로부터 온 통신을 가방에서 꺼내어 “최근 북경의 류기석으로부터 부쳐온 爲替(換) 2백 불을 가지고 왔다면, 은행에서 수취하여 자금으로 충당하라면서 정화암에게 건네주었

67)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유길공사암살음모’, 18-19쪽.

68) 「야마다순사 보고서」, 14쪽.

69) 「야마다순사 보고서」, 14-15쪽.

다. 정화암은 곧바로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갔고, 그 사이 원심창은 류자명에게 거사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 백정기와 이강훈의 거사 결행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여 아리요시와 장제스의 밀약이 있음을 사회에 폭로하기 위해 원고를 작성해줄 것을 류자명에게 부탁하였고, 류자명도 이를 쾌히 승낙하였다고 한다. 또 원심창은 백정기와 이강훈의 거사를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기념사진을 촬영할 것을 제의하여, 그 자리에 참석했던 류자명, 정화암, 오면식, 백정기, 이강훈, 이용준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점심을 마친 뒤, 중국인 거리 老西門 부근에 있는 중국인 경영의 사진관에 가서 백정기와 이강훈의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정화암은 사진대금으로 2불 10센트를 지불하였다. 오면식은 다음 날 오후 이 사진을 찾아서 원심창에게 건네주었다. 12일 정화암과 류자명은 백정기의 집을 방문하여, 백정기에게 거사 자금으로 120불을 지급하였고, 백정기는 이후 이를 동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한편 류자명은 정화암의 집에서 12일에 성명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원심창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⁷⁰⁾

한편 3월 12일 오키는 이날 원심창에게 아마다 순사가 가르쳐 준 ‘비책’에 따라 일단 연회의 장소가 육삼정이며, 날짜는 3월 17일경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⁷¹⁾ 아마다 순사의 보고서를 보면, “밀정에게 준 비책에 의하여 원훈(원심창)은 홍구에서 실행을 결의하고, 12일 밤 현장의 지리를 연구하기 위해 밀정에게 홍구의 안내를 의뢰하여, 밀정은 3월 12일 오후 7시 30분경 자동차로 갈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12일 오후 7시 30분 오키는 원심창의 숙소로 찾아 갔는데, 마침 원심창의 방에서 약 20명이 회합 중이어서 그는 입실을 거부당했고, 외부에서 약 5분 정도 기다렸더니 원심창과 1명의 조선인이 나왔다고 한다.⁷²⁾

70)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21~23쪽.

71)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23쪽에서는, 12일 오후 4시경 원심창이 谷田部勇司로부터 “오는 17일 금요일에 시각은 미정이지만 육삼정에서 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보를 전해준 것은 야타베가 아니었다.

72) 「종합보고서」 2, 23쪽에 의하면 원심창과 오면식이 이날 저녁 육삼정 부근을 상세히 시찰하였다고 한다.

오키는 이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여 홍구에 가서 육삼정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지리를 약 30분에 걸쳐 조사하고, 8시 30분에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때 원심창은 우선 아리요시 공사가 육삼정을 출입할 때에 거사를 하기로 하고, 거사를 위한 본거지를 武昌路의 松江春(일명 中西大菜館) 중국요리점에 두고, 연락원은 무창로에서 文藍師路的 六三亭 맞은편으로 통하는 골목길 입구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고, 공사의 출입 시기를 보아 실행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또 원심창은 이 일은 중대한 일이므로 거사에 동참할 다른 동지들에게도 연구를 시킬 필요가 있으니, 다음 날인 13일 밤에 동지 2명을 데리고 와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14일 오후 2시부터 원심창의 자택에서 오키와 만나 최후의 실행방법을 결정하기로 하고, 원심창과 다른 1명은 乍浦路에서 인력거를 타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밀정 오키는 12일 원심창으로부터 거사에 동참할 다른 두 사람의 사진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소노대(園田) 경부에게 제출하였다고 한다.⁷³⁾

13일 저녁 원심창과 백정기, 이강훈은 현장을 다시 답사하고, 행동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4일 오후 5시경 백정기와 이강훈은 보안과 연락을 위해 동지들과 헤어져 프랑스 조계의 白爾路 上海公寓라는 여관으로 숙소를 옮겼다. 이후 백정기는 정화암으로부터 40불을 더 받았으며, 이강훈도 17일 결행 당일에 정화암으로부터 도주 비용으로 20불을 받았다고 한다.⁷⁴⁾ 백·이 두 사람이 상해공우로 옮긴 뒤, 여러 동지들이 차례로 두 사람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백정기는 정화암에게 자신의 자택에 준비해둔 폭탄과 권총을 거사 당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화암은 16일 오후 1시경에 백정기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폭탄 1개, 수류탄 1개, 권총 2정을 원심창의 집에 옮겨두었다. 이들의 계획은 아리요시 공사가 육삼정을 나와서 자동차에 타려 할 때, 백정기는 도시락형의 폭탄을 투척하고, 만일 작렬하지 않을 시에는 이강훈이 수류탄을 투척한 뒤 혼란을 틈타 도주하며, 만일 체포되는 경우에는 각자 소지한 권총으로 상대를 사살하고, 가능한 한 저항하여 도주한다는 계획을 세

73) 「아마다순사 보고서」, 16-18쪽.

74)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24-25쪽.

왔다. 그리고 도주 후에 동지들과 만나는 장소는 결행 당일 선정하여 두 사람에게 알려주기로 했다.⁷⁵⁾

한편 13일 야마다 순사는 오키에게 다시 비책을 주고, 14일에 원심창을 만나도록 지시했다. 14일 오후 2시 오키는 원심창을 방문하였고, 이때 원심창은 거사를 같이 할 동지의 이름이 백구파(백정기)와 이강훈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오키는 육삼정에서 아리요시 공사가 출석하는 연회가 3월 17일로 확정되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이 정보는 허위 정보로서, 전날 야마다 순사가 가르쳐준 비책이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창은 13일 거사에 참여할 이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세운 계획을 오키에게 알려주었다.⁷⁶⁾

그들이 세운 계획은 거사의 임시 본부를 무창로에 있는 송강춘에 두고, 파수꾼을 무창로에서 문남사로로 통하는 골목길 중간에 두고 연락을 맡긴다. 오키는 공사의 자동차 위치를 알려주고, 또 연회가 종료되어 공사가 나오기 직전에 앞의 파수꾼에게 연락을 한다. 암살 실행 후 도주용 자동차를 사포로 동본원사 전방 도로에 영국 조계 방면을 향하도록 세워놓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오키는 이날 원심창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인 야타베 무지(중국명 吳世民)가⁷⁷⁾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⁷⁸⁾ 이는 「종합보고서」에 원심창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오는 야타베가 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야마다 순사는 오키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다시 ‘비책’을 주어 16일 최후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다. 16일 오후 2시 오키는 채시로의 원심창의 집에서 열린 거사 준비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가 원심창의 집에 갔을 때에는 류자명,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야타베 무지 등이 이미 모임을 갖고

75)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25~26쪽.

76) 「야마다순사 보고서」, 18~20쪽.

77) 「종합보고서」에서는 矢田部勇司가 아니라 谷田部勇司라고 기록하였다. 矢田部和 谷田部가 모두 야타베로 발음이 같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에서 矢田部라는 씨는 흔히 있지만, 谷田部라는 씨는 찾기 어렵고, 일본총영사관 경찰에서 사건 이후에 도주한 그를 수배할 때에 계속 矢田部勇司라는 이름을 계속 썼기 때문에 矢田部勇司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78) 「야마다순사 보고서」, 20~21쪽.

계획을 논의 중이었다고 한다. 오키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4일 회의에서 논의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었다.⁷⁹⁾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1) 아리요시 공사 암살 실행 참가자는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및 야타베 무지 및 오키의 5명으로 한다.
- 2) 원심창, 야타베 무지의 2명은 연락계로서 참가한다.
- 3) 백정기, 이강훈 2명은 폭탄, 수류탄으로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한다.
- 4) 오키는 아리요시 공사가 육삼정에 들어가는 시각 및 그 동정에 주의하여 돌아가는 시각을 보아 야타베에게 연락하고, 야타베는 하수인인 백정기 및 이강훈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할 것.
- 5) 백, 이 두 사람은 연락과 동시에 실행에 옮길 것.⁸⁰⁾

한편 상해총영사관의 영사 시모가와 쿠이치[下川久市]가 7월 5일에 작성한 「예심종결서」에서는 “결행 당일의 연락 관계는 육삼정 앞의 工藤自動車店에 대기하는 ‘일본인 동지’로부터 아리요시 공사가 나오는 때를 문남사료와 무창로 사이의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는 야타베에게 알리고, 야타베는 송강춘의 피고인 등(백정기와 이강훈)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⁸¹⁾ 즉 거사 결행시의 연락은 ‘일본인 동지’ → 야타베 → 백정기 및 이강훈의 순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인 동지’에 대해서는 씨명과 같은 인적 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오키라는 밀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밖에도 그들은 거사 당일인 17일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1) 오후 6시 이후 오키를 제외한 4명이 프랑스조계 태평교 북쪽 白爾路 興順坊 상해 공우 전화 85718번 19호실로 옮겨가서 陳耀○이라 이름을 바꾸고 대기할 것, 2) 오키는 아리요시 공사가 연회를 위해 육삼정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79) 「아마다순사 보고서」, 22쪽.

80) 「아마다순사 보고서」, 23~24쪽.

81) 「상해 총영사관의 원심창 등에 대한 예심결정서」(소화 8년 7월 5일), 18쪽.

이를 상해공우에 전화로 통보할 것, 3) 전화가 오면 대기하던 4명은 곧 자동차로 홍구에 이르러, 우선 오기가 도주 시에 대비하여 준비한 사포로 동본원사 전방의 자동차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연락이 있으면, 무창로 송강춘 중국 요리점 쪽으로 이동할 것, 4) 이때 야타베는 파수꾼으로서 OK카페 골목길 입구 부근에 나가서 기다리고, 원심창·백정기·이강훈 3명은 송강춘 2층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5) 아리요시 공사가 돌아간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하여 아리요시 공사가 육삼정을 나올 때, 우선 백구파는 호위자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이와 동시에 이강훈은 도시락형의 폭탄을 아리요시 공사 눈앞에 던져 폭살하고, 기타 3명은 가급적 속히 사포로 동본원사 앞에 준비해둔 자동차의 위치로 가서 구강로 이외의 도로를 택하여 도주할 것 등이었다.⁸²⁾

그런데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거사 시의 결행의 역할과 각 인물의 이동 경로가 약간 다르다(뒤의 <그림 1> 지도를 참조할 것).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리요시 공사 연회 퇴장 약 30분전,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야타베 무지의 4명은 자동차로 ①의 松江春에 이르고, 자동차는 ⑤의 지점에서 대기할 것.

야타베는 곧 소로를 통하여 工藤자동차부 앞의 ②에 이르러 공사의 동정을 감시하고, 공사가 퇴장할 모양이 있을 시에는 즉시 ①로 돌아가 백 밧이에 통지하고, ⑤의 장소에 이르러 자동차 안에서 대기할 것.

이강훈, 백정기 두 사람은 야타베의 보고를 받고, ①을 출발하여 송강춘 앞의 골목길을 통하여 ③의 지점에서 ④공사의 자동차를 향하여 폭탄 및 수류탄을 투척하고, ⑤에 미리 준비해둔 자동차로 갈 것.

원심창은 이, 백이 출발한 후, ①의 정리를 마치고, ⑤의 도망용 자동차로 갈 것.

원훈, 야타베는 폭탄이 작렬하는 소리를 듣고 3분 기다렸다가 이, 백 두 사람이 오지 않으면 뒤에(다음날인 17일) 결정하게 될 동지와의 만날 장소로 이동한다.⁸³⁾

82) 「야마다순사 보고서」, 24-26쪽.

83)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27-29쪽.

그러나 여기에서 야타베가 구도자동차부 앞에서 공사의 동정을 감시하기로 했다는 것은 왜곡으로 보인다. 앞서 본 「예심종결서」에서는 구도자동차부 앞에서 공사의 동정을 살피기로 한 것은 오키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훗날 나가사키지방법판소에서의 재판 판결문에서도 원심창과 관련된 주문 가운데 “결행 당일 밤의 연락으로서 육삼정 앞의 工藤자동차점에 기다리고 있을 동지 某가 유길공사의 퇴출 시점을 文路和 武昌路의 小路에 있는 谷田部に 통지하고, 동인은 송강춘의 피고인들에게 속히 알려, 피고인 백정기 및 이강훈은 즉시 출동하여 공사에게 폭탄을 던지기로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⁸⁴⁾ 이를 통해 보면, 그들의 최종 계획은 공사가 나오는 낚새가 보일 때, 구도자동차부 앞의 오키가 골목 안쪽의 야타베에게 알리고, 야타베는 송강춘의 동지들에게 달려가 알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야만 연락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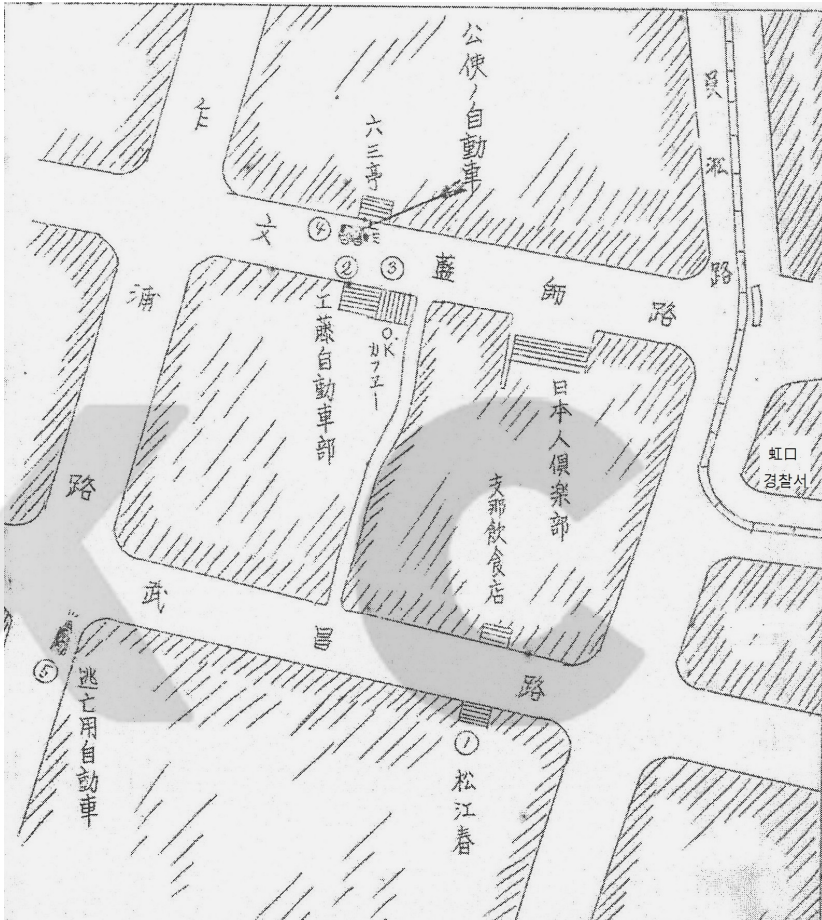
한편 그들은 거사 이후의 조치로서, 1) 거사 실행 직후 홍구에서의 정보를 오키는 원심창 일행에게 통지할 것, 2) 통지 장소는 실행 당일 원심창이 사포로 동본원사 앞에서 알려줄 것, 3) 당일의 오키와 원심창 일행 사이에서의 전화 통보에 지장이 있으면 일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16일 오후 8시에 전화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확실성을 담보해 둘 것 등을 결정하였다.⁸⁵⁾ 이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고, 이후 그들은 진진경제식당의 봉래로 분관으로 이동하여 러시아 요리로 회식을 하고, 오후 4시 반에 모임을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에 약속대로 오키는 상해공우에 전화를 걸어 야타베와 직접 통화함으로써 전화 예행연습도 마쳤다.⁸⁶⁾ 일본 영사관 경찰은 밀정 오키를 통하여 함정을 팠고, 이 함정에 원심창 등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함정에 다가서고 있었다.

84) 나가사키 지방법원,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에 대한 판결문」.

85) 「아마다순사 보고서」, 26-27쪽.

86) 「아마다순사 보고서」, 27쪽.

〈그림 1〉 아리요시 암살미수 사건 현장 약도 (출처: 『종합보고서』, 28쪽)



3) 경찰의 함정에 빠진 원심창 등의 거사

운명의 날, 3월 17일이 왔다. 오전 11시경 원심창의 집에 정화암, 야타베, 오면식, 백정기, 이강훈, 류자명의 7명이 모여 점심을 먹은 뒤, 류자명과 정화암의 제의로 백정기와 이강훈 두 사람을 격려하는 의미로 송별회를 열기로 했다. 오후 4시 반부터 프랑스 조계 제7세로 대세계 안쪽에 있는 중국 요리

집 삼화루에서 열린 송별회에는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정화암, 오면식(양여주), 이달, 이용준(전리방), 엄형순, 김성수(김지강), 류자명, 야타베 무지 등 11명이 참석했다. 박기성(이수현)과 정해리는 다른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식사를 하고, 송별사 등은 하지 않은 채 재회를 약속하는 악수를 나누었다고 한다.⁸⁷⁾

송별회 종료 후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류자명, 오면식 등은 다른 동지들과 헤어져 오후 8시경 상해공우로 돌아와 오키의 전화를 기다렸다. 이때 류자명, 정화암, 원심창은 결행 후 백정기, 이강훈 등과 만날 장소를 물색하러 나갔다. 그들은 프랑스조계 애다아로 소재 南京大戲院 뒤의 남경대여사 3층 26호실을 林友生이라는 가명으로 빌려두었다. 이들은 다시 상해공우로 돌아가 백정기와 이강훈에게 거사 후 만날 장소는 남경대희원 앞이라고 알려주었다.⁸⁸⁾

한편 야마다 순사로부터 공작의 경과를 보고받은 경찰서장 대리 후쿠야마 경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吳淞路의 入舟라는 음식점에서 제2과장 아카키(赤木) 영사, 사이키(佐伯) 부영사, 소노다 경부, 그리고 밀정 오키와 함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후쿠야마 경부는 원심창 등의 체포를 제2과의 아카키 과장에게 인계하였다. 제2과는 바로 특별고등경찰과, 약칭 '특고'를 말한다. 상해총영사관 내에 특고가 설치된 것은 1921년의 일이었다. 이후 1932년에 윤봉길의거가 발생하자, 상해 특고의 조직을 강화한 상황이었다.⁸⁹⁾

그런데 원심창 등을 향한 공작은 제2과, 즉 특고가 아닌 제1과(과장은 소노다 경부)에서 진행하였던 것이다. 소노다는 3월 24일 외무성의 이세아국 제2과장인 아이바 기요시(梅場清)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래 이 건을 특고에 넘기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충분히 밀정을 사용한 뒤에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국 범인 체포에 임박하여 밥상이 다 준비된 뒤에 아카키(赤木)씨에게 인도하고, 工部局과 함께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87)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30쪽.

88)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30-31쪽.

89)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在上海特別高等警察機關關係一件』 제1권(1932년 6월 14일 작성) 참조.

아카키씨로부터 직권 문제에 관하여 듣기 싫은 말을 들었지만, 일이 매우 중대하고 급하고 주의를 요하는 것이어서 겹쳐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라고 변명하였다.⁹⁰⁾ 즉 밀정을 사용하는 경찰로서는 밀정과와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바꾸기 힘들었다는 것이었다.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은 상해 공공조계 공부국의 경무처 경찰과 함께 공동 작전에 들어갔다. 밤 8시 30분경 밀정 오키는 상해공우에 있던 원심창 등에게 아리요시 공사가 9시 30분경 연회에서 나올 것 같다는 전화를 했다.⁹¹⁾ 이에 원심창와 오면식은 원심창의 집으로 가서 폭탄 1개, 수류탄 1개, 권총 2정, 실탄 15발을 가지고 프랑스 조계 서성자동차부 앞으로 왔다. 백정기, 이강훈, 야타베는 류자명, 정화암과 함께 서성자동차부 옆의 民國路 津津茶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9시경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야타베 등 4명은 서성자동차부에서 빌린 자동차를 타고 홍구 쪽으로 이동하였다.⁹²⁾

당시 일본 경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 당시의 상황을 상해 총영사 이시이 이타로(石射猪太郎)가 외무대신 우치타 고사(内田康哉)에게 3월 27일 보낸 기밀 보고서 「유길공사 암살음모 무정부주의자 검거의 건」에 의해 살펴보자. 오키는 상해 공우에 전화를 한 때를 전후하여 일본 경찰 쪽으로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 총영사의 보고서를 보면, “오후 8시 일당이 발동하는 모양이 확실하다는 뜻의 정보에 접하여 8시 15분경 사포로와 무창로 교차점 부근에 여러 명의 動哨를 두고, 무창로 송강준 앞 가옥 내에 3명의 감시원을 잠복시키고, 본대는 홍구 경찰서 안에서 대기토록 하였다.”고 하였다.⁹³⁾ 이후의 상황을 이시이 총영사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90) 「소노다(園田)가 아이바 기요시(相場清)에게 보낸 편지」, 1933년 3월 24일.

91) 「종합보고서」에서는 야타베 무지가 전화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뒤에서는 야타베가 서성자동차부 옆의 한 식당에서 백정기 등과 함께 원심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밀정 오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오키가 한 일을 모두 야타베가 한 것처럼 기록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92)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31~32쪽.

93) 「이시이 총영사 보고서 : 유길공사 암살음모 무정부주의자 검거의 건」(1933년 3월 27일자).

기다리는 중에 9시 20분에 이르러 한 대의 자동차가 서방 사포로 방면에 서 와서 도착하고, 3명의 조선인 같은 인물이 송강춘에 들어갔다. 즉 원·이·백의 일당이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감시원은 이를 곧 홍구 경찰 내의 본대에 보고하고, 본대가 곧 출동하였다. 즉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공부국) 형사는 방탄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우리 경찰관과 함께 전후에서 동시에 침입하여, 2층에 있던 일당을 습격하여, 불의에 기선을 제압하여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으며, 무사히 원 이하 3명을 체포하고, 탁상 위에 모자로 은폐하고 있던 폭탄 및 수류탄 각 1개 및 휴대한 권총 2정(이태리제 벨레즈타 형 및 단톤 형), 실탄 15발을 압수하였다.⁹⁴⁾

위에서 보면, 5~6명의 감시원이 송강춘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으며, 영사관과 공부국의 경찰은 원심창 일행이 송강춘에 들어간 직후에 지척에 있던 홍구경찰서에서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훈이 쓴 회고록 가운데 당시 상황에 대해 쓴 부분을 살펴보자.

운명의 날인 3월 17일이 돌아왔다. 이규호 동지가 서성자동차 회사로 가서 전세 택시를 빌려와 류자명, 오면직, 백정기, 원심창과 내가 타고 공동조계 경계선인 南市에 있는 진진차관까지 갔다. 거기서 오면직, 류자명과 저승에서나 만나자며 작별인사를 하고 조계로 들어가 현장 부근에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폭탄이 들어 있는 과자봉지 같은 것을 옆에 끼고 낙화생(땅콩)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그런데 원심창이 백 의사와 같이 대기장소인 송강춘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나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 때에 나는 벌써 일이 틀렸구나 생각했으나, '죽든 살든 같이해야지 나 혼자 피해서는 안될 말이다.'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에게 다가가 '오늘 일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사에키(佐伯) 경시, 후지이(藤井) 경부보 등 영사관원 10여 명과 영국 경찰 수 명이 고함을 치며 총을 들이대어 할 수 없게 체포되고 말았다.⁹⁵⁾

위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이회영의 아들 이규호(본명 이규창)이었으며, 자동차에서 내린 원심창과 백정기가 먼저 송강춘의 2층으로 올

94) 「이시이 총영사 보고서 : 유길공사 암살음모 무정부주의자 검거의 건」(1933년 3월 27일자).

95)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158~159쪽.

라갔고, 원심창은 2층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도로 내려와서 뒤에 오던 이강훈에게 손짓을 하여 어서 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강훈은 그러한 행동으로 일본 경찰이 뭔가 낚새를 채지 않았을까 우려하면서 원심창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직후 공부국 경찰과 영사관 경찰이 고함을 치며 급습하여 3인 모두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갔던 일본인 야타베는 어찌 되었을까. 그는 원심창, 백정기 일행에 앞서 자동차에서 내렸지만, 송강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송강춘과 육삼정 사이에 있는 골목길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⁹⁶⁾ 그런데 그는 육삼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오키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일본 영사관 경찰과 조계의 공무국 경찰이 송강춘을 습격하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원심창 일행의 거사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 거사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화암의 분석이 가장 정확하다. 그는 거사 당일 송강춘에서 오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⁹⁷⁾ “그는 첩자였으며, 그가 남화연맹 동지들에게 육삼정 회합에 관해 정보를 준 것도 이들을 잡으려는 일본영사관의 음모에 따른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⁹⁸⁾ 즉 정화암은 비록 뒷날이지만, 이 사건이 일본영사관의 음모, 즉 역공작에 의한 것이었다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4)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의 재판

상해총영사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개전의 정이 없고, 취조관에 대해 이렇게 호언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리요시 공사 암살은 하등 다른 이로부터 사주 선동을 받은 바가 없다. 우리들은 모두 무정부주의

⁹⁶⁾ 나가사키 지방법원,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에 대한 판결문」.

⁹⁷⁾ 이는 정화암이 잘못 기억한 것이다. 예심종결서에 의하면, 오키는 송강춘으로 오지 않고, 육삼정 앞 부근에서 야타베에게 신호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⁹⁸⁾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 나의 회고록』, 자유문고, 1982, 152쪽.

자들이다. 우리는 자금 조달이 여의하였다면, 이미 일본 혹은 조선에 잠입하여 커다란 흥포 행위를 감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행할 수 없었을 뿐이다. (중략) 우리가 아리요시 공사를 선택한 것은 장소가 상해여서 소액의 경비로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아리요시 그 사람에게는 하등의 감정이 없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악이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리요시 공사는 일본제국주의의 대표자이다.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하는 것은 필경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행위이다. 우리 무정부주의자의 당연한 길이며, 또 의무이다. 우리들은 주의를 위하여 사는 자이며, 주의를 위하여 죽는 것은 본래부터 바라는 바이다.”⁹⁹⁾ 이러한 진술을 보면, 그들의 아리요시 공사 암살 의지는 분명하였으며, 무정부주의자로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려는 의지 또한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일본영사관 경찰은 이러한 그들의 굳은 의지와 열의를 이용하여 역공작을 펼쳤고, 그들의 의지가 그만큼 굳고 열의가 높았기 때문에 공작은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강춘에서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을 체포한 일본 영사관 경찰은 3월 18일 우치타(内田) 외무대신에게 지급전보로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하려고 공동조계 내에 들어온 무정부주의자의 일단인 경기도생 원훈, 강원도생 이강훈, 전라북도생 백구파의 3명을 3월 17일 오후 9시 30분 공동조계 무창로 지나요리점 송강춘에서 공부국의 응원을 얻어 체포하였으며, 지난 해 당지의 홍구공원 폭탄사건 하수인인 윤봉길이 휴대 대한 도시락형 대형폭탄과 동일한 폭탄 및 독일계 수류탄 및 권총 2정, 실탄 15발을 압수하고, 범인은 當舖에 구속 취조 중이며, 다른 연루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계속 엄중 수사 중임.¹⁰⁰⁾

같은 날 총영사관은 외무대신에게 상해의 외국어 신문 및 중국 신문에서

⁹⁹⁾ 「종합보고서」 2, 범죄사실 중 ‘유길공사암살음모’, 33~34쪽.

¹⁰⁰⁾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内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 제106호(1933년 3월 18일자).

공부국 및 중국측 방면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의 개요를 보도했다는 것, 총영사관에서도 이날 오후 4시 수사 상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개요를 공표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만주, 북경 및 중국 내 각지의 일본 영사관과 조선총독부에도 이 사실을 전보로 알려주었다.¹⁰¹⁾ 국내(조선)에서는 3월 21일 총독부로부터 보도 금지가 풀려 각 신문에서는 이를 「有吉공사 암살계획 밀의현장을 습격」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¹⁰²⁾

한편 상해 총영사관은 3월 20일 외무대신에게 아리요시 공사 암살 사건 범인 원심창을 취조한 결과, 그가 지난 해 12월 16일 발생한 천진 폭탄 투척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천진영사관측에도 이를 통고하였다.¹⁰³⁾ 그리고 23일에는 원심창에 대한 취조의 결과, 천진 사건의 공범자는 원심창, 이용준, 류기석, 류기문 등 4명이라는 것, 그리고 천진 주재 일본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이용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외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이를 천진 주재 영사관에 통고해주었다.¹⁰⁴⁾

상해 총영사관은 3월 31일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아리요시공사암살음모 불령선인 일당 검거에 관한 건」이었다. 이 보고서는 총영사관 경찰이 상해의 김구 일파와 무정부주의자들의 동태를 염탐 중이던 3월 5일에 원심창이 상해의 중국인 의사가 경영하는 華光醫院에서 동지 두세 명과 회합하여 상해 주재 일본인 요인을 암살할 모의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후 정탐을 계속하여 3월 17일 아리요시 공사가 일본요리점 육삼정에서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 원심창의 지도 아래 백정기, 이강훈, 야타베 4인이 오후 9시 중국요리점 송강춘에 모여 암살을 결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첩보로 알게 되었다고 썼다. 그리고 총영사관 경찰은 공동조계의 공부국 경찰과 미리 수배를 마치고 협력하여 이들을 모두 현장에서 검거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⁰⁵⁾ 그러나 이 보고서

101)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 제107호(1933년 3월 18일자).

102) 『동아일보』, 1933년 3월 21일, 「有吉公使暗殺計劃 密議現場을 襲撃」.

103)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 「상해총영사관에서 천진영사관에 보내는 전보」 제4호(1933년 3월 20일자).

104) 「상해총영사관에서 천진영사관에 보내는 전보」 제5호(1933년 3월 23일자).

는 밀정 오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상당 부분 진실을 왜곡, 은폐한 것이었다.

상해 총영사관은 한 달여에 걸친 심문 끝에 4월 18일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및 건조물 손괴의 죄로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3명을 기소하여 총영사관 소속 사범영사의 예심 과정을 밟았다. 이후 7월 5일에는 예심과정을 종결하고, 역시 같은 죄목으로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의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7월 10일 長崎丸에 3인을 실어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로 송치하였다.¹⁰⁶⁾ 아울러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통제해 오던 것을 해금하여 죄명, 피고인의 씨명, 연령, 예심결과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¹⁰⁷⁾

이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는 하세가와 마쓰타로(長谷川松太郎) 재판장의 2명의 판사의 심리 하에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원심창 등에 의해 밀정 오키의 이름이 튀어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11월 15일 검사는 원심창과 백정기에게 무기징역, 이강훈에게 15년형을 구형하였다. 11월 24일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연도를 내렸다. 재판장은 원심창에 대해서는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및 건조물손괴, 백정기 및 이강훈에 대해서는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폭발물취체벌칙에 따라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언도하였던 것이다.¹⁰⁸⁾ 그런데 특기할 것은 재판장의 판결문 가운데 앞서 본 것처럼 일본인 밀정의 흔적이 잠깐 나온다는 점이다. 즉 원심창과 관련된 주문 가운데 “결행 당일 밤의 연락으로서 육삼정 앞의 구도자동차점에 기다리고 있을 동지某가 아리요시 공사의 퇴출 시점을 文路와 武昌路의 소로에 있는 야타베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동지 모’는 바로 밀정 오키를 가리

105)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 '아리요시공사암살음모 불령선인 일당 검거에 관한 건'(1933년 3월 27일자).

106)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기밀보고서」(1933년 7월 8일자).

107)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 제258호(1933년 7월 10일자).

108) 「나사카기현 鈴木지사가 廣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통보 요지」(1933년 11월 17일자 · 11월 25일자).

키는 것이었다.¹⁰⁹⁾ 이렇게 보면 당시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밀정 오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이 ‘역공작’과 ‘함정수사’에 의해 유도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천진 영사관 폭탄 투척사건과 관련하여 천진영사관은 1934년 2월 이 사건의 주범 류기석이 상해 하비로의 한인 교회 목사 집에 잠복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그를 수배해줄 것을 외무대신과 상해 총영사관에 요청하였다.¹¹⁰⁾ 또 1935년 4월에는 상해총영사가 廈門 영사에게 조회를 보내, 일본인으로서 아리요시 암살미수 사건에 관련되었으나 도주한 아타베 무지가 복건성 하문 泉州 泮宮平民中學校에 관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그를 수배하여 체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¹¹⁾

한편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단체인 흑우연맹은 1933년 12월 31일자 『흑색신문』에서 나가사키재판소에서의 이 사건 재판에 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원심창 등이 아리요시를 암살하려 한 것은 아리요시가 중국의 장제스를 매수하여 그로 하여금 만주를 포기하도록 하고, 열하에서 일본군과 싸우지 않도록 하려 했고, 이 밀약의 교섭은 이미 그해 2월 중순에 대략 이루어져 이 밀약을 와해시키려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신문은 암살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해 당일 아리요시 공사의 연회를 경비하기 위한 사복경찰 병력이 육삼정 부근에 깔려 있었고, 이들이 원심창 일행을 수상히 여겨 원심창 일행을 덮침으로써 체포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대체로 재판 판결문과 다른 신문 보도들에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¹¹²⁾ 당시 흑우연맹으로서는 일본인 밀정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109) 나가사키 지방법원,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에 대한 판결문」

110) 「천진의 栗原 총영사가 廣田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 제52호(1934년 2월 28일자).

111) 「상해의 石射 총영사가 塚田 하문 영사에게 보낸 전보 요지」(1935년 4월 12일자).

112) 『흑색신문』, 1933년 12월 31일, 「B.T.P단원은 왜 有吉明 주화공사 암살을 결의하였는가」 「有吉明암살 준비 착착 진행」(김명섭, 「1930년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들의 항일선전지 “흑색신문”」,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278~279쪽 참조).

4.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이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상해의 한인 무정부주의 단체로서 류자명, 류기석이 조직한 남화한인청년연맹에 참여하고 있던 원심창이 아리요시 주중 일본 공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원심창은 류기석과 함께 1932년 10월 천진에서 일본영사관과 일본기선 등에 폭탄을 던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원심창은 상해에서 주중 일본공사와 미국총영사를 암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이와 같은 계획은 상해 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의 귀에 들어갔고, 아마다 순사는 그 계획의 출처가 원심창임을 파악하고, 밀정인 오키에게 지시하여 원심창을 접촉하도록 하였다. 3월 5일 원심창을 만난 오키는 원심창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아리요시 공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조만간 상해 홍구에서 유지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원심창은 흑색공포단원들을 즉각 소집하여 아리요시 공사의 암살 계획을 털어놓고 동지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흑색공포단원들은 이에 적극 동의하였고, 특히 백정기와 이강훈은 자신들이 거사의 실행을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3월 6일 이들은 다시 모임을 갖고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을 선정하였다.

3월 12일경 밀정 오키는 아마다 순사의 지시에 따라 원심창에게 아리요시 공사 일행의 연회 장소가 육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에 원심창은 그날 밤 오키와 함께 홍구의 육삼정 부근을 현장 답사하고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웠다. 이날 답사에서 원심창은 거사를 위한 대기장소로서 육삼정에서 골목길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송강춘을 선정하였다. 13일 저녁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은 따로 현장을 답사하고, 행동계획을 세웠다. 14일 원심창은 오키에게 거사에 참여할 두 사람이 백정기와 이강훈임을 알려주었다. 16일 원심창 등은 최종적인 암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오키가 육삼정 앞에서 아리요시 공사 일행의 동정을 살피고, 아리요시 공사가 연회를 마치고 나올 기미가

있으면 골목 안쪽에 대기하는 일본인 무정부주의자 야타베에게 알리고, 야타베는 바로 송강춘으로 달려가서 백정기와 이강훈에게 알려, 백과 이가 육삼정 앞으로 달려와 폭탄과 수류탄으로 공사를 암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행은 모두 바로 자동차가 대기 중인 곳으로 이동하여 현장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오기를 통해 그대로 일본총영사관 경찰에게 전달되었다. 영사관 경찰은 17일 오후 작전계획을 세워, 영사관 경찰의 제2과, 즉 특별고등경찰과의 과장이 체포작전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원심창 일행은 9시 20분경 자동차 편으로 송강춘 부근에 도착하였다. 야타베가 먼저 내려 육삼정 쪽 골목으로 향하였고, 이후 원심창과 백정기, 그리고 이강훈 순으로 내려 송강춘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이 송강춘에 들어가자 인근의 흥구 경찰서에 대기 중이던 공동조계의 공부국 경찰과 일본 영사관 경찰이 바로 출동하여 송강춘을 덮쳤다. 그리하여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은 송강춘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잡혔다. 야타베는 아마도 경찰이 송강춘을 덮치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체포된 3인은 이후 영사관 경찰의 취조를 받았으며, 영사관 소속의 검사의 예심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로 넘겨졌다. 그들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되어, 원심창과 백정기는 무기징역, 이강훈은 15년형을 언도받았다. 백정기는 복역 중인 1934년 옥사했으며, 원심창과 이강훈은 해방 이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원심창이 먼저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일본 경찰의 귀에 들어가, 일본 경찰이 일본인 밀정을 이용하여 역공작을 펴서 암살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심창과 백정기, 이강훈 등은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였으나, 정보를 제공한 일본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여 결국 일본 경찰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는 거사의 실패와 3인의 체포였다. 원심창 등은 한 해 앞서 있었던 윤봉길의거를 의식

하여 '제2의 윤봉길의거'를 꿈꾸었으나, 이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 투고일 : 2017. 9. 22. / 심사완료일 : 2017. 10. 17. / 게재확정일 : 2017. 10. 27.
- 주제어 : 육삼정 사건, 아리요시 공사, 암살미수,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밀정, 흑색공포단



❖ 참고문헌

- 상해 총영사관이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각종 보고서 및 전문.
巡査 山田角兵衛의 경찰서장 대리 경부 福山三霍에의 보고.
소노다(園田)가 아이바 기요시(榎場清)에게 보낸 편지.
상해총영사관, 「아리요시공사 암살미수사건 종합보고서」.
상해총영사관, 「원심창 등에 대한 예심결정서」.
나가사키 지방법원,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에 대한 판결문」.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在上海特別高等警察機關關係一件』 제1권(1932년 6월 14일 작성).
가토 요코 저, 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 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9집, 2012.
_____, 「1930년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들의 항일선전지 “흑색신문”」,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_____, 「류자명의 항일 의열활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박종연, 「일제시기 이강훈의 민족운동과 육삼정의거」, 『승실사학』 32집, 2014.
류기석, 『삼십년방랑기 : 류기석 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24집, 2010.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 청퇴 이강훈 자서전』, 제3기획, 1994.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 김성숙 · 장건상 · 정화암 · 이강훈의 독립투쟁』, 민음사, 1988.
이호룡, 「류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현실』 53, 2004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 나의 회고록』, 자유문고, 1982.
최기영, 「해제」, 『삼십년방랑기 : 류기석 회고록』, 국가보훈처, 2010.
황민호, 「일제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이규창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집, 2014.
古屋哲夫 編, 『日中戦争にいたる対中国政策の展開とその構造』, 『日中戦争史研究』, 吉川弘文館, 1984.

❁ 국문요약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박 찬 승

아리요시공사 암살미수 사건은 상해의 한인 아나키스트 단체인 남화한인 청년연맹에 참여하고 있던 원심창이 아리요시 아키라 중국 주재 일본 공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이와 같은 계획은 상해 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의 귀에 들어갔다. 아마다 순사는 그 계획을 세운 인물이 원심창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일본인 밀정인 오키에게 지시하여 원심창과 접촉하도록 하였다. 3월 5일 원심창을 만난 오키는 아리요시 공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조만간 상해시 홍구에서 유지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원심창은 한인 아나키스트청년들의 행동단체인 흑색공포단원들을 즉각 소집하여 아리요시 공사의 암살 계획을 털어놓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흑색공포단원들은 이에 적극 동의하였고, 3월 6일 거사의 주역으로서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을 선정하였다.

3월 12일경 밀정 오키는 원심창에게 아리요시 공사 일행의 연회 장소가 ‘육삼정’이라는 음식점임을 알려주었다. 이에 원심창은 그날 밤 오키와 함께 홍구의 육삼정 부근을 현장 답사하고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웠다. 13일 저녁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은 따로 현장을 답사하고, 행동계획을 세웠다. 14일 원심창은 오키에게 거사에 참여할 두 사람이 백정기와 이강훈임을 알려주었다. 16일 원심창 등은 최종적인 암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오키가 육삼정 앞에서 아리요시 공사 일행의 동정을 살피고, 아리요시 공사가 연회를 마치고 나올 때 골목길 입구에 대기하는 일본인 아나키스트 야타베에게 알리고, 야타베는 바로 대기장소인 음식점 송강춘으로 달려가서 백정기와 이강훈에게 알려, 백과 이가 육삼정 앞으로 달려와 폭탄과 수류탄으로 공사를 암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오키를 통해 그대로 일본총영사관 경찰에게 전달되었다. 원심창 일행은 9시 20분경 자동차 편으로 송강춘 부근에 도착하였다. 야타베가 먼저 내려 육삼정 쪽 골목으로 향하였고, 이후 원심창과 백정기, 그리고 이강훈 순으로 내려 송강춘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송강춘에 들어가자 인근의 홍구 경찰서에 대기 중이던 공동조계의 행정 경찰과 일본 영사관 경찰이 바로 출동하여 송강춘을 습격했다. 그리하여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은 송강춘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잡혔다.

결국 이 사건은 원심창이 먼저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일본 경찰의 귀에 들어가, 일본 경찰이 일본인 밀정을 이용하여 역스파이 공작을 펴으로써 암살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었다.

✻ Abstract

Attempted Assassination of Japanese Minister Ariyoshi Akira in 1933 in Shanghai

Park, Chan-seung

Attempted Assassination of Japanese Minister('Liusanting Incident') in 1933 started with a plot that Won Shim-chang, a member of the South China Korean Youth League, which was a Korean anarchist organization in Shanghai, hatched to assassinate the Japanese minister to China, Ariyoshi Akira. That plot leaked out to the police at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Shanghai. A Japanese policeman, Yamada, noticed that the person who hatched the plot was Won Shim-chang, and instructed a Japanese spy Oki to contact Won Shim-chang. On March 5, Oki met Won Shim-chang and told him that Ariyoshi would soon have dinner with influential people in the Hongkou district of Shanghai before leaving for Japan. Then, Won Shim-chang convened Black Terrorist Group, a Korean anarchist youth action group, to reveal the plot to assassinate Ariyoshi and seek their consent to it. The members of Black Terror Group actively consented to it, and selected and asked Won Shim-chang, Baek Jeong-gi and Lee Gang-hun to take an action.

On around March 12, Oki told Won Shim-chang that the dinner banquet for Ariyoshi and his party would be held in a restaurant 'Liusanting.' On that night, Won Shim-chang investigated the vicinity of Liusanting in Hongkou together with Oki and made a detailed plan. On the night of the 13th day, Won Shim-chang, Baek Jeong-gi and Lee Gang-hun investigated the venue

separately and set up an action plan. On the 16th day, Won Shim-chang and others established a final plan for assassination. The plan was as follows: Oki would watch the movements of Ariyoshi and his party around Liusanting; when Ariyoshi got out of the banquet, Oki would tell it to Japanese anarchist Yatabe waiting in the alleyway; Yatabe would tell it to Baek Jeong-gi and Lee Gang-hun in Songjiangchun Restaurant, a waiting place; Baek Jeong-gi and Lee Gang-hun would go to Liusanting and assassinate Ariyoshi with bomb and grenade.

However, the plan was revealed to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police through Oki. Won Shim-chang and his party arrived at the vicinity of Songjiangchun by car at around 9:20 pm. Yatabe got out of the car first and went towards the alley to Liusanting. Then, Won Shim-chang, Baek Jeong-gi and Lee Gang-hun got out of the car in order and moved to Songjiangchun. However, when they entered Songjiangchun, the administrative police of the an international settlement and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police, who had been waiting at the nearby Hongkou police station, raided Songjiangchun immediately. Then, Won Shim-chang, Baek Jeong-gi and Lee Gang-hun were arrested in Songjiangchun without fighting back.

In conclusion, this incident was the case that Won Shim-chang's plot to assassinate Ariyoshi leaked out to the Japanese police and that the Japanese police performed a counterespionage maneuver using a Japanese spy.

Key words : Liusanting Incident, Japanese minister Ariyoshi, attempted assassination, Won Shim-chang, Baek Jeong-gi, Lee Gang-hun, Spy, Black Terror Group